

소카 스피릿

일련 정종의 세 가지 오류

창가학회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초대 회장과 도다 조세이 2 대 회장은 일련 정종의 신도로 신심을 시작하였다. 일련 정종은 니치렌 대성인의 직제자였던 닛코 상인이 13 세기에 설립한 교단의 20 세기 이름이다.

원래는 후지 문류라고 불리던 일련 정종은 불행히도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인 남묘호렌게교의 홍교 즉 광선유포 성취라는 근본정신을 잃어버리며 일본의 작고 가난한 불교 교단이 되었다. 교육 개혁에 몸바친 교육자였던 마키구치 선생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한 후,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은 일반 민중의 인생과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심오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스스로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로서 광선유포 성취라는 개인적인 서원을 세우게 되며, 그의 제자인 도다 조세이도 이에 동참한다.

창립 회장의 강한 신심과 깊은 사명감을 통해서, 창가학회는 진보적으로 사회 속에 뿌리내리며 비약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창가학회는 수십 년간 일련 정종을 정성껏 외호하였으며, 본산인 대석사를 복원하였고, 350 여 개의 절을 공양했다. 동시에, 창가학회는 종문과의 화합에도 노력했으나, 종문은 점차 권위적으로 되어갔다.

처음부터 종문과 창가학회의 초점은 달랐다. 종문은 교단과 전통 유지를, 창가학회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 홍교 즉 광선유포의 성취를 목표로 두었다.

창가학회 탄생 이전, 일본의 대부분 불교종파와 같이 일련 정종의 신도들은 스스로 불도 수행을 하지 않았다. 신도들은 승려들에게 경을 독송하고 장례식과 추모식 같은 전통의식의 거행을 의뢰했다.

마키구치 회장이 처음으로 신도들에게 범화경 독송과 남묘호렌게교 창제를 개인 신심의 형식으로 제안하셨다. 광선 유포 실현의 사명을 가지고 적극 실천하는 신도 단체의 출현이 바로 일련 정종 신도들로 하여금 오랜 수동적 신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급격한 출발점이 되었다.

1970 년대와 80 년대, 일련 정종은 창가학회 회원들의 공양과 후원을 통해서 점차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창가학회와 국제 창가학회 SGI 는 지속해서 성장해 갔다. 그러나 역동적인 창가학회의 활동과 성장은 일련 정종 승려들 사이에 창가학회를 향한 적대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들의 세계관은 일본에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일본의 불교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신도는 승려에게 공양하고 승려를 존경하는 수동적인 신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은 아니다. 오히려 대성인은 일반 신도를 소중히 하며 최대한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다. 그러나 승려들에게는 모두 평등하게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는 신도 단체인 SGI 가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후 제 67 세 법주가 된 닛켄을 비롯하여 높은 지위에 있던 몇몇 승려는 종문을 수호하고 번영을 위해 지속해서 헌신해온 창가학회와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을 향한 질투와 적대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질투심을 불법에서는 마의 작용이라 하며, 결국에는 광선유포의 대 발전을 축하하고 도와야 할 승려들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1991 년 초, 최고 법주 닛켄의 명령으로 창가학회를 파면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결국, 1991 년 11 월 창가학회를 파문하며, 창가학회 회원 대부분을 종용하여 학회를 떠나 지방 절에 등록하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종문의 이런 행보의 근본 동기는 승려는 신도와 니치렌 불법의 불력과 가르침 사이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종문의 관점이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통의식과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승려는 신도가 자신들과 특히 최고 법주를 존경하고 복종하기를 바랐고 이를 신도의 최고 신심 수행이라 여겼다.

반대로, 창가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와 초대 회장들의 신심의 모습을 따라,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과 의도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SGI 가 1991 년 일련 정종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이후 한층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창가학회의 신심이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바르다는 증명이 된다. SGI 는 현재 192 개국 지역에서 회원들의 인생과 사회 속에서 니치렌 불법의 올바른 신심의 힘을 증명해 가고 있다.

다음은 일련 정종의 세 가지 근본 오류를 요약한 것이다.

오류 1: 법주 절대론

‘법주신앙’ 은 일련 정종의 중심 교리이며, 이것은 본산의 주지를 본존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종문은 이 관점을 바탕으로, 법주를 존경하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신도가 성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점은 니치렌 불법에서 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가르침과 어긋나며,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에 비추어서도 틀림없는 오류이다.

종문에 따르면, 최고 법주만이 누가 성불하고 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다고 하며, “스승이 제자의 성불을 승인한다…최고 법주의 승인에 따라 본존을 설립하는 것이 바로 성불을 가능케 한다. 법주는 유일하게 대성인 불법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

최고 법주가 제자의 성불을 ‘승인’ 한다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최고 법주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교의도 니치렌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없다. 이 개념은 최고 법주가 다른 승려로부터 존경과 후원을 받지 못할 당시에 후지 문류의 최고 법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니치렌 대성인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닛코상인은 닛코 유계치문에서 “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에 상위(相違)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어서 1618 쪽)이라고 하셨다. 명백하게 닛코 상인은 최고 법주가 오류를 범하거나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셨다. 최고 법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것이다.

오류 2: 그릇된 혈맥관

법주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문은 ‘전대 법주에게 상승을 받는 것’이라는 신비적인 혈맥관을 주장한다. 즉, ‘살아있는 석존의 모습으로서의 법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강조하며 법주를 통해서만이 묘법의 혈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이전 법주로부터 그다음 법주 간의 ‘금구(金口)’라고 불리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혈맥이 전해지며, “니치렌 불법의 근본 원리는 오직 법주에게 전해진다”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니치렌 대성인은 어본존을 향한 신심을 통해서 혈맥은 전해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 쪽)

“일본국의 일체중생에게 법화경을 믿게 하여 성불하는 혈맥(血脈)을 잇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서 1337 쪽)

특정 그룹의 승려에게만 혈맥이 상승한다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 당시 타 불교 종파에 널리 퍼져있던 개념이었지만,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에서는 이것을 반박하였다. 니치렌 불법은 모든 사람이 신심을 통해 전 우주와 개인의 생명 속에 내재한 것을 평등하게 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오류 3: 화의(化儀)의 악용

특히 일본에서 승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신분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17세기 즈음, 기독교의 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는 국민 모두 각 지역의 불교 절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승려들은 정부 관료의 역할을 맡으며, 주민 관리, 여행, 일자리 등 문서들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종교 생활에 함께 관여하게 되었다.

일련정종에서는 “일련 정종 신도는 각 지역 절의 주지를 스승으로 모셔야 하며, 법주예하를 대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이 점을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하지 않을 경우, 결국엔 대어본존님을 배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

1991년 1월 12일 후지모토 니치준, 당시 일련 정종 종무총감은 창가학회에 보낸 편지에서, “승려와 신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자만이다. 사실, 이것은 불교 신도의 화합을 파괴하는 오역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더욱 최근에 일련정종은 다음과 같이 출간한다. “니치렌 불법에서 승려와 신도에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니치렌 대성인은 승속의 평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 중에서 남녀 승니(男女僧尼)를 가리지 말지어다.” (어서 1134 쪽)
“승(僧)도 속(俗)도 이(尼)도 여(女)도 일구라도 남에게 말하는 사람은 여래(如來)의 사자(使者)라고 쓰였느니라.” (어서 1448 쪽)

그리고 또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釋尊)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깨달아서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奉唱)하는 바를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血脈)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은 다만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의 간요이며, 법화경을 가진다고 함은 이것이로다.” (어서 1337 쪽)

모든 사람의 평등은 법화경과 니치렌 불법의 근본 교리이다. 불법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를 사제불이로 표현하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서로 존경하며 광선유포라는 목표를 향해 사명과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스승이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온갖 난관과 역경에 맞서 오직 민중들의 불계를 깨우치게 하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련 정종에서 스승이란 지위와 순위로 결정된다. 법주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존경하도록 요구하며, 신도들은 자신이 소유한 ‘비밀’을 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의 왜곡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실천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